

산후우울증 진료 현황

1. 분석배경

- 산후우울증은 아기의 정서 불안, 언어 발달 지연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져올 수 있는 산후 합병증 중 하나임
- 산후우울증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개입, 치료 등을 통하여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질환으로 저출산 대책과 더불어 산후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본 고에서는 출산 후 우울증과 기분장애로 진료받은 환자를 분석하여 국내 산후우울증 진료 수준을 파악함

2. 분석 방법과 내용

- 자료원 : 2007~16년 건강보험청구자료
- 대 상 : 2008~15년에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로 출산한 20~45세 여성
- 산후우울증 진료의 정의 : 출산 퇴원 후 6개월 내에 우울증, 기분장애¹⁾로 진료받은 경우(모든 진단명 고려)

3.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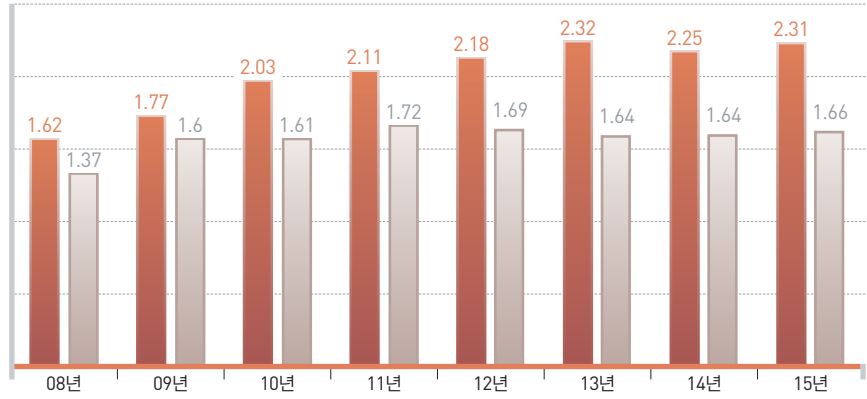
- '15년에 출산한 여성은 이전 1년 내에 산후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비율은 2.31%로 '08년(1.62%) 이후 증가함
- 출산 후 6개월 내에 산후우울증으로 진료받은 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1.6%로 연도별로 큰 차이는 없음
- 상급종합병원,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우, 산후우울증 진료 경험률 높음
 - ▶ 2015년을 기준으로,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여성의 산후우울증 진료 경험률은 2%, 자연분만은 1.43%임. 상급종합병원에서 출산한 여성의 산후우울증 진료 경험률은 2.51%, 종합병원 2.29%, 병원 1.5%, 의원 1.58%임

1) 양극성정동장애(F31.x), 우울증 에피소드(F32.x), 재발성 우울성 장애(F33.x), 지속성 기분장애(F34.x), 기타 기분장애(F38.x), 기타 불안장애(F41.x),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산후가의 정신 및 행동장애(F53.x) 자료원) 이동우 등. 산후우울증 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대한정신건강재단 · 보건복지부, 2015

[그림 1] 출산 전·후 산후우울증 진료 경험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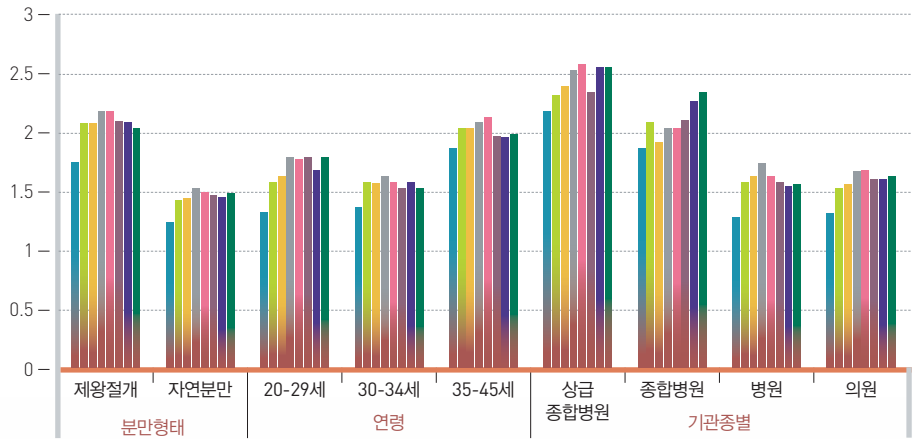
■ 출산 전 우울증
진료 경험
■ 출산 후 우울증
진료 경험



[그림 2] 분만 특성에 따른 산후우울증 진료 경험률

(단위: %)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표 1] 분만 특성에 따른 산후우울증 진료 경험

(단위: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분만 형태	제왕절개	1.70	2.03	2.04	2.15	2.15	2.05	2.04	2.00
	자연분만	1.19	1.36	1.38	1.47	1.43	1.40	1.39	1.43
연령	20~29세	1.28	1.53	1.57	1.74	1.72	1.74	1.63	1.74
	30~34세	1.31	1.53	1.52	1.58	1.54	1.48	1.54	1.48
	35~45세	1.82	1.98	1.98	2.04	2.07	1.91	1.90	1.93
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2.12	2.26	2.35	2.49	2.53	2.29	2.51	2.51
	종합병원	1.80	2.04	1.87	2.00	1.99	2.06	2.22	2.29
	병원	1.24	1.53	1.57	1.66	1.57	1.55	1.49	1.50
	의원	1.27	1.47	1.50	1.61	1.64	1.56	1.56	1.58

4. 결론

- 2011년 산후우울증 진료 경험률은 1.72%로, 국내 출산 후 1개월 내 주요 우울증 경험률(14.0%)²⁾과 비교하면 저치료되고 있음
- 고위험 산모는 정상 산모에 비해 산후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분만 특성(고연령, 제왕절개술, 상급종합병원)에 따른 진료 경험률 차이가 이를 반영함
- 산후우울증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극복이 가능한 질환으로 산후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초점을 둔 관리가 요구됨

2) 조맹제 등.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 · 서울대학교, 2011

